

유럽과 아시아대학생의 페이스북 이용행동과 삶의 만족에 관한 비교 연구

- 독립적 개인주의문화와 상호의존적 집단문화 관점에서 -

박현지*
hyunjeejp@gmail.com

<目次>

- | | |
|-----------------------|---------------------|
| 1. 서론 | 4.1 연구대상 |
| 2. 유럽과 아시아대학생의 문화적 차이 | 4.2 자료수집 |
| 3. 연구문제 | 4.3 측정도구 |
| 3.1 삶의 만족도 | 5. 연구결과 |
| 3.2 페이스북의 적극적 이용행동 | 5.1 기초적 분석 |
| 3.3 페이스북의 수동적 이용행동 | 5.2 가설검정 |
| 3.4 조절변수 | 5.3 페이스북 이용시간의 영향분석 |
| 4. 연구설계 및 방법 | 6. 결론 및 시사점 |

主題語: 유럽과 아시아대학생(european and asian university students), 페이스북(Facebook), 이용행동(usage behaviour), 삶의 만족도 (life satisfaction), 독립적 개인주의문화(independent individualistic culture), 상호의존적 집단문화(interdependent group culture)

1. 서론

SNS(social network sites)에 관한 연구들은 매우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SNS는 기존 미디어와는 달리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초국가적 미디어(Cho & Park, 2012)로 발전하였으며 그 특성을 고려한다면 다른 문화권과의 비교를 통한 연구 등으로 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문화적 차이가 SNS 이용자 참여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학자들로부터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Baym, 2010), 최근 몇몇 문화 간 비교 연구들이 SNS 이용동기, 이용경험 및 커뮤니케이션 형태 등 SNS이용 특성에 따라 문화

* 영국 Cardiff대학교 School of Journalism, Media and Culture 연구원

간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Fogg & Iizawa, 2008; Lewis & George, 2008; Vasalou, Joinson, & Courvoisier, 2010; Barker & Ota, 2011; Kim, Sohn, & Choi, 2011; Chai, 2020). 또한, boyd (2006)는 “미국과 다른 문화권의 연구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여 줄 것이다(p.12)”라고 주장하였다. 즉, 글로벌화 된 SNS에 대한 연구는 특정국가 혹은 특정 문화에 치중된 연구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권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간(cross-cultural) 비교 연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페이스북(Facebook)은 소셜미디어 환경하에서 수백만 이용자들이 매일 사용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SNS이다(Desilver, 2015; Smith & Anderson, 2018; Brailovskaia et al. 2020). 특히, 페이스북은 대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SNS이다(Kokkinos and Saripanidis 2017; Paul et al. 2012; Clement, 2020). 페이스북 이용 정도는 유럽대학생의 경우 평균적으로 82%(Business of Apps, 2020), 아시아대학생의 경우 평균적으로 86%(Statista, 2020)로 조사되었다. 이에 더하여 이용자들인 대학생들은 하루에 1번 이상 페이스북에 로그인하고 있으며, 페이스북 이용시간은 평균적으로 50분정도로 조사되었으며(Gramlich, 2019; Stewart, 2016), 주로 뉴스를 읽고 친구 혹은 가족들과 소통하며 관심있는 내용을 포스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사회적 지지를 교환하는 등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Li, Chen, & Popiel, 2015).

페이스북 이용과 같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SNS 이용행동은 삶의 만족도와 연관이 있다는 결과는 이미 기존 연구들을 통해 제시되었다. 특히, Valkenburg et al(2006)은 SNS 이용이 증가할수록 이용자들은 더 많은 이들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더 많은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기회를 가질 수 있음을 주장한다. 또한 이는 결과적으로 SNS 이용자의 자아 존중감을 높여주고, 높아진 자아존중감은 그들의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페이스북과 같은 SNS 이용이 이용자의 자존감과 전체적 웰빙 감각을 향상 시키고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뿐만 아니라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이 혼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혼재된 선행연구 결과는 설문문항에서 질문의 불명확성 및 응답자의 기억 왜곡으로 인한 회상편중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Lee et al., 2011; Pantic et al., 2012). 하지만, 회상편중은 일기 연구를 이용하면 최소화할 수 있고 연구 결과의 생태적 타당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변인들의 시간이나 맥락에 따른 변화를 탐구할 수 있게 된다(Almeida, 2005). 그러나 이 연구방법은 응답자들이 하루 수차례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기록을 해야 한다는 점과 수집된 자료들을 비교분석하는데 복잡성 및 시계열 자료적 특성을 가진 수집된 자료의 유사성과 자기상관 문제 등으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기에 본 연구와 같은 소셜미디어 관련 연구에서는 Kross et al.(2013)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스마트 폰의 일상화로 인해 자료 수집의 어려움이 해소되었고, 다양한

추가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의 추가적인 내적 신뢰성을 재확인할 수 있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기존의 대다수 연구에서는 SNS 이용행동의 일반적 지표를 사용한다. 연구의 설문조사에 참가한 응답자들에게 전체 SNS 이용 시간을 질문하고(Kross et al., 2013; Muise et al., 2009; Pantic et al., 2012), 로그인 빈도(Davila et al., 2012) 혹은 기존 선행연구에서 차용된 페이스북 이용척도 (Utz and Beukeboom, 2011; Valenzuela et al., 2009) 등을 이용하여 SNS 참여도를 측정하는 것은 보편적인 연구 수단이다. 이처럼 통합적 측정으로 문제적 소지가 있는 결과를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연구는 단일 항목을 선택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본 연구에서는 페이스북의 구체적인 이용 행동의 영향을 검정하기 위해 적극적 이용행동과 수동적 이용행동 등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유럽과 아시아대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페이스북 이용행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문화적 맥락의 비교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기존의 혼재된 연구 결과를 재검정하기 위해 일반적인 설문지 방식에서 벗어나 일기연구를 이용한 자료를 사용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상이한 문화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유럽(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5국과 아시아 3국(한국, 일본, 중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페이스북 이용행동을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동서양 문화 간 차이에 대한 비교연구로 대학생들의 페이스북 이용행동을 비교분석해봄으로써 이용자들의 보편적인 특성이나 유형을 파악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문화 간 차이에 대한 비교연구도 부족하지만, 대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이용행동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한 연구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기에 새로운 연구결과를 제안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2. 유럽과 아시아대학생의 문화적 차이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비교 연구에서 문화권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성향이다(Triandis, 1989). 특히, Hofstede(2001)는 서양의 개인주의 사회와 동양의 집단주의 사회로 구분하였다. 서양 문화권에서 독립성과 개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나’를 주변 맥락과는 떨어진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존재로 보는 것은 서양문화의 근거가 된다(Nisbett, 2003). 하지만, 동양 문화권에서는 그룹 간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개인보다는 나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또는 이들과의 상호작용은 동양문화의 근거가

된다(Nisbett, Peng, Choi, & Norenzayan, 2001). 또한 서양 문화권은 기본적으로 공유하는 지식이 없기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소통방식을 선호하는 저 맥락 사회인 반면, 동양 문화권은 상황적 맥락적 지식을 공유하기에 함축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소통한다(Hall, 1976). 이에 더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인지적 관점에서도 서양 문화권에서는 대부분 분석적 사고(analytic approach)인 반면 동양 문화권에서는 통합적 사고(holistic approach)에 기반을 둔다(Nisbett, 2003).

이러한 차이는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오랜 기간 각각 다르게 형성되어 왔으며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도식(schema)이 동서양간에 상이하기 때문에 자아개념인 상호의존성과 독립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 자아개념(self-concept)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체제화된 내적·개인적 생각으로 나 자신과 타인의 관계에 따라 상이하게 형성된다(Markus & Kitayama, 1991). 동양의 상호의존적 자아개념(interdependent self-construal)은 자아와 타인이 연결되어 있어 집단주의적 성향을 보이며, 이는 상호 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하는 상황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타인을 중심으로 나 자신을 인식하게 된다. 반면, 서양의 독립적 자아개념(independent self-construal)은 자아가 특정한 타인과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어 개인주의적 성향을 보이며, 이는 나를 중심으로 스스로 표현하고 주변을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

이처럼 독립적 개인주의문화와 상호의존적 집단문화는 커뮤니케이션 양식에 영향을 주는 전형적인 동양과 서양의 가치지향성(value orientation)으로 제시된다(김민선, 2008). 또한, 개인의 특정 문화의 경험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타인의 말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다(Kang & Hong, 2007).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동양적 문화인 상호의존적 집단문화는 타인 중심적이고 관계의 조화를 중시하기에 대체적으로 자신을 감추고 타인을 배려하는 커뮤니케이션 양식이 더 강조되는 반면, 서양적 문화인 독립적 자아개념의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자기중심적이고 개인 성취에 대한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커뮤니케이션 양식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자아개념에서 나타나는 상호의존적·독립적 성향 차이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커뮤니케이션 유형 차이로 나타난다(Chen, 1993). 상호의존적성향인 경우 개인은 타인과의 감정과 집단의 분위기를 고려하여 언어 중심의 의사소통 보다는 비언어적인 요소를 통해 의미를 이해하려는 성향이 높기 때문에 명확한 의사전달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인다(Singelis, 1994). 반면 독립적 성향이 강한 경우 개인은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노출하며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해 상호의존적 성향에 비해 직접적인 언어 커뮤니케이션을 선호한다. 이와 같이 동양권 문화에서는 서양권 문화에 비해 커뮤니케이션시 언어를 활용한 직접적인 의사소통보다는 자기노출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비언어적인 요소를 중시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대적 문화차이는 페이스북을 이용행동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 동아시아 문화권의 한국, 일본 및 중국은 유사한 역사적·사회적 경험과 체계를 공유하고 있으며 온라인 공동체 내에서의 상호교류를 추구하는 SNS 이용과 관련된 행태에 있어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Hofstede, 1991). 반면 유럽의 5개국은 개인의 도덕적 가치를 중시하며 독립적 개인주의문화라는 공통된 개인적·사회적 경험과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기와 성인기 사이의 과도기로서 폭넓은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고 타인과 친밀감을 형성하여 신뢰를 쌓는 등 다양한 대인관계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시기이다(Erickson, 1959). 따라서 유럽과 아시아대학생들의 문화적 차이에 따른 페이스북 이용행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는 것은 boyd(2006) 및 Chai(2020) 등이 주장한 것처럼 매우 의미 있는 연구이다.

3.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일기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유럽과 아시아 대학생들의 페이스북 이용행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독립적 개인주의문화와 상호 의존적 집단문화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비교 연구이다. 대학생들의 페이스북 이용행동은 타인에게 보이는 자신의 이미지를 가꾸는 동시에 타인들이 그런 이미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가장 큰 페이스북 이용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이다(양혜승, 김진희, 서미혜, 2014).

페이스북이 일상생활에서의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대중화되어짐으로써 다양한 영역에서 수행된 연구들은 이용자 특성 및 이용행태에 따라 페이스북과 같은 SNS의 이용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송인덕, 2016). SNS를 인간관계 형성 및 커뮤니케이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이용자의 만족감과 행복감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제기되어 왔다(Ellison, Steinfield, & Lampe, 2007; Gonzales & Hancock, 2011). 또한 대학생들의 페이스북 이용 중 대부분의 행동은 타인들의 프로필을 살펴보는 행위이며(Joinson, 2008; Pempek, Yermolayeva & Calvert, 2009; Soron & Tarafder, 2015), 타인들이 게시한 글과 사진 및 동영상을 보면서 나의 처지를 확인한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Appel, Gerlach, & Crusius, 2016; Lee,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삶의 만족도이며, 독립변수는 페이스북의 적극적(active) 이용행동과 수동적 이용행동이다. 페이스북의 적극적 이용행동은 포스팅(posting), 댓글(commenting), 좋아요(liking) 및 채팅(chatting)을 선정하였으며, 수동적(passive) 이용행동의 척

도로는 뉴스 피드(news feed)를 팔로우하는 데 소요된 시간과 다른 사람의 정보를 팔로우하는 수동적 팔로잉과 이용자가 받은 피드백을 사용하였다.

3.1 삶의 만족도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는 재산, 성공, 그리고 삶의 질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판단으로서 자신의 내적 기준 또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한 상대적 인식이며(Diener, Emmons, Larson, & Griffin, 1985), 인간의 전반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행복이나 즐거운 상태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주관적으로 얼마나 만족하는가에 대한 평가이다(Diener, Suh, Lucas & Smith, 1999). 즉, 자신의 삶에 대해서 주관적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개념이다(Lyubomirsky et al., 2005).

개인의 인지된 삶의 환경과 자신이 설정한 기준 및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조건들이 기준들과 부합할수록 그리고 타인에 비해 우월하다고 평가할수록 개인은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갖게 된다(Srivastava, 2015). 또한, 전문가의 판단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이 직접 평가한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주관적 만족과 연결되어 진다. 하지만 삶의 만족도의 개념은 삶의 질, 주관적 만족감, 행복감 등 다양한 용어들과 혼용되어 사용되어 왔으며, 학자들 또한 개념에 대해 다양한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정순돌, 성민현, 2012).

삶의 만족도는 환경적인 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하는 특성(Deiner & Fujita, 2006)을 갖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학생의 삶의 만족을 살피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대학생들의 삶을 과거에 비해 물리적 편리함과 함께 페이스북 등 SNS 이용의 용이함으로 변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과 이용의 용이함이 반드시 삶의 만족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대학생들의 페이스북 이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 영향(James et al. 2017; Oh, Ozkaya, & LaRose, 2014; Grieve, Indian, Witteveen, Anne Tolan, & Marrington, 2013; Ellison, Steinfield, & Lampe 2007)과 부정적 영향(Shakya & Christakis, 2017; Fox & Moreland, 2015; Kross et al., 2013; Sagioglou & Greitemeyer, 2014) 등으로 혼재된 결과는 이미 기존 연구들을 통해 제시되었다.

3.2 페이스북의 적극적 이용행동

1) 포스팅과 댓글작성

페이스북은 사람들이 친구, 가족 및 동료들과 효율적으로 교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소셜

유틸리티(social utility)로 사회적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다(Zhan, Sun, Wang, & Zhang, 2016). 선행 연구들은 SNS 이용행동을 이용 목적에 따라 분류하기도 하는데(Brandtzaeg, & Heim, 2016; TechCrunch, 2018), 페이스북 이용에 있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프로필 상태 업데이트 등의 포스팅과 댓글작성이며, 이러한 행위는 타인들과의 적극적인 상호 작용 의사표시이기에 페이스북의 적극적인 이용행동을 의미한다. 기존의 선행연구를 보면 페이스북의 포스팅과 댓글 작성의 적극적인 이용 지수와 삶의 만족도 사이에 긍정적 또는 적어도 부정적이지 않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자기노출(self-disclosure)은 이용자의 행복(happiness)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Kim and Lee, 2011; Kim et al., 2013), 정서적 균형에 영향을 미치며(Lee et al., 2011), 삶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친다(Lee et al., 2011; Wang, 2013).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정서적 지원, 사회적 연결성 및 사회적 자본의 증진과 적극적인 공유 및 의사소통과 관련된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같은 결과이다(Kalpidou et al., 2011; Koroleva et al., 2011).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페이스북을 통해 지인을 포함 한 타인들과 공유할 경우 나타나는 대표적인 긍정적인 면은 근본적으로 보상의 경험에 반응하는 뇌의 특정 영역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임상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Tamir & Mitchell, 2012). 이러한 결과는 페이스북 이용행동에서 긍정적인 자기표현이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인식을 향상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Kim & Lee, 2011). 결론적으로 페이스북의 포스팅 및 댓글 작성과 같은 적극적인 이용행동 요인과 삶의 만족도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첫 번째 및 두번째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포스팅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댓글 작성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좋아요

페이스북의 적극적인 이용행동 중 프로필 업데이트 및 댓글과는 달리 ‘좋아요’는 적극적인 이용행동과 수동적인 이용행동 등 양면을 보여주는 행동이자 긍정적 감정을 나타낼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이다. 실제로 ‘좋아요’를 하려면 적극적인 이용행동이 필요하지만 ‘좋아요’를 누르면 이용자의 소극적 참여를 염두에 둔 수동적 이용행동으로 인식된다(Koroleva et al., 2011).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는 본래 콘텐츠 자체의 “감사의 표시(sign of appreciation)” 의도였으나 (Spiliotopoulos et al., 2013), 원래의 의도와는 달리 “나는 당신의 게시물을 읽었다(I have read it)”라는 의미로 인식되고 있다(Bosch, 2013). 예를 들면 Barash et al.,(2010)은 페이스북 이용자가 적극적인 이용행동인 댓글작성을 할 경우 재미있거나 흥미로운 게시물과 관심이 없거나 지루한 게시물을 구분하지만, 이용행동의 양면성을 가진 ‘좋아요’는 포스트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 반응하지 않는다.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수동적 이용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좋아요’는 포스팅한 사람을 “좋아요(like)”하는 것보다 포스팅한 콘텐츠를 “좋아요(liked)” 할 가능성이 더 높다(Hampton et al., 2012). ‘좋아요’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선택사항이며, 이용자는 타인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타인이 포스팅한 콘텐츠를 보고 “좋아요”를 누른다. 이런 이용자의 행위를 개인적인 성향과 관심의 표시로 해석 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좋아요”는 받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관련된 두 당사자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개인적 삶의 만족도와 행복을 높이는 기반이 된다(Cotten, 2008). 따라서 이와 같은 ‘좋아요’의 긍정적 효과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세 번째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3: ‘좋아요’는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채팅

페이스북의 채팅은 비공개이지만 이용자들이 일상의 지루함을 극복하고 최신 트렌드를 쫓아가려는 의지이며, 채팅기능을 이용하여 타인과의 소통을 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등 적극적인 이용행동을 나타내는 요인이다(Lenhart et al., 2013). 채팅과 관련된 기존 선행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채팅은 이용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상당한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페이스북 채팅이 대학생 학습 성과와 수업 준비에 부정적인 예측 요인으로 밝혀졌다(Junco, 2012). 또한, 채팅은 학교에서의 사회적 불안감 및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며(Gross et al., 2002; Grant, 2004), 중독과 학업 성적 저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Huang & Leung, 2009). 반면, 채팅은 각종 스트레스로부터의 감정적 해소에 도움이 되며(Dolev-Cohen & Barak, 2012), 친구들과의 관계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Valkenburg & Peter, 2009). 또래의 역할의 강화시키며(Cotten, 2008), 관계 유지 및 발전을 촉진시켜주는(Quan-aase & Young, 2010)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따라서 채팅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결론적으로 기존 선행연구의 혼합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네 번째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4: 채팅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페이스북의 수동적 이용행동

1) 수동적 팔로잉

페이스북 이용자가 뉴스 피드를 읽는 시간과 타인의 프로필을 검색하는 시간을 반영한

페이스북의 수동적 팔로잉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선행연구들은 긍정과 부정의 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teers, Wickham, & Acitelli, 2014; Vogel et al., 2014, 2015; Verduyn, et al., 2015; Verduyn, et al., 2017). 예를 들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즐거운 경험을 위해 선택적 수동적 팔로잉을 하며(Wise et al., 2010), 이용자가 세상을 보는 관점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보 및 네트워킹 이점이 있으며(Koroleva et al., 2011), 원하는 유대감과 사회적 신뢰 구축(Valenzuela et al., 2009)을 할 수 있다. 반면, 타인의 매력적인 프로필 사진과 성공적인 프로필 이력에 노출되면 페이스북 상에서의 사회적 비교 행위가 초래하는 부정적 효과를 우려하는 연구결과들도 제시되고 있다(양혜승 등, 2014; Qiu, Lin, Leung, & Tov, 2012). 또한, 사회적 상황비교는 열등감과 질투심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페이스에 대한 이용자의 삶의 만족도에 강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Krasnova et al., 2013), 이러한 타인의 자기과시적 정보에 노출된 이용자들은 부러움과 질투심, 나아가 타인과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불만족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기존 선행연구의 혼합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다음의 다섯 번째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5: 수동적 팔로잉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피드백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 페이스북 이용행동에서 타인의 피드백(tone of feedback)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으로 추출하였다. 피드백은 페이스북 커뮤니케이션의 한가지 방법으로 송신인(senders)이 메시지를 수신인(recipient)에게 전송하는 행위이며(Ilgen, Fisher and Taylor, 1979), 피드백은 타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인이다(Hattie and Timperly, 2007). 페이스북에서 타인의 피드백은 일반적으로 친구의 댓글, 답변락 게시물 또는 직접 채팅에서 나타난다. 이 요인은 특히 대학생들 사이에서 사이버 불링(cyberbullying), 위협(threatende), 협박(blackmailed), 불쾌감(offended), 놀림(teased) 또는 모욕(humiliated)의 형태로 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Schneider et al., 2013). 특히, 부정적 피드백은 우울감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어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Davila et al., 2012; Bonanno & Hymel, 2013). 반면, 긍정적인 피드백은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자존감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와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도구라고 할 수 있다(Valkenburg et al., 2006; Eroglu, 2016). 이에 더하여 긍정적인 피드백은 이용자가 더 강한 사회적 유대감을 느끼게 되며, 이는 우울감과 불안 감소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Grieve et al., 2013). 결론적으로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여섯 번째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6: 긍정적 피드백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3.4 조절변수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로서 자기 스스로 자신을 존중하며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Rosenberg, 1965). 이때 객관적인 재능이나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의 평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Orth & Robins, 2014). 대학생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에너지가 많고, 안정적이고 행복한 모습을 많이 갖는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폭력, 우울, 낮은 학교성적 등을 나타내는 특징을 보인다(Donnellan et al., 2006).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서 성공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Crocker & Park, 2004).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대학생의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평가하는지에 대한 지표로서 이후 삶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하는 문제와 연관이 매우 높다는 연구보고가 있으며(Jeong & Lee, 2014; Shin, et al., 2010), 기존의 많은 선행연구에서 자아 존중감이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 중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특히, 높은 자아 존중감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Diener and Diener, 1995). 이와 같이 자아존중감은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영향요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을 조절변수로 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2) 페이스북 이용시간

페이스북 이용 시간은 페이스북 노출 정도를 측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변인으로서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이를 이용하였다(Kim & Chock, 2015; Manago et al., 2015; Meier & Gray, 2013). 따라서 페이스북 이용자가 페이스북 이용에 보내는 시간적인 요인을 종합하여 조절변수로 선정하였다. 일부 선행 연구들의 경우 SNS 이용 정도와 삶의 만족도가 연관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예를 들어 Valkenburg et al.,(2006)은 SNS의 이용 정도와 삶의 만족도가 긍정적 관계를 가질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SNS 이용은 더 많은 친구들을 사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이들 친구들로부터 더 많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게해 주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이는 이용자들의 자아존중감을 고취시키고 결과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한편, SNS 이용이 반대로 삶의 만족도를 하락시키거나 혹은 우울증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증가시킨다는 주장 또한 존재한다. 이른바 대체 가설(Displacement Hypothesis)

입장의 학자들은 SNS 이용이 늘어나게 되면, 온라인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친구 관계 유지를 위한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는 일상생활에서의 친구 관계의 질을 악화시키면서 이용자 개인을 점차 고립시키면서 결과적으로 이는 삶의 질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Kraut et al, 1998). 또한, 이경탁 외(2013)에서는 SNS 이용 정도가 삶의 만족도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렇듯, 다양한 결과들이 상존하는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페이스북 이용시간을 조절변수로 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3) 성별, 학년 및 페이스북 친구수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이용 관련 기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개인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소셜미디어 이용에 있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해 왔기에(Valkenburg, et al., 2006; 이경준 외, 2016),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페이스북 친구 수 등의 변수를 조절변수로 설정하였다. 단, 본 연구의 특성 상 대학생을 기준으로 설문조사하였기에 학년을 연령의 대체변수로 사용한다. 페이스북 친구 수는 페이스북을 통하여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들을 의미하며, 팔로잉을 제외한 팔로우 한 친구(예를 들면 자신이 팔로우 한 친구, 자신을 팔로우 한 친구, 서로 팔로우 한 친구 등)로 한정한다. 이처럼 팔로우 한 친구는 이용자들이 사회관계 및 동료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요인으로, 페이스북 친구 수가 이를 실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Tong et al.,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별, 학년 및 페이스북 친구수를 조절변수로 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4. 연구설계 및 방법

4.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영국의 L도시에 위치한 A, B, C, D, E대학교에 유학중인 유럽 5개국(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과 아시아 3개국(한국, 중국, 일본) 대학생 각각 90명을 대상으로 2020년 8월 3일부터 2020년 8월 9일까지 7일 동안 일기연구(diary method)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참가자들은 각 대학교 학생회를 통해 자발적 참여의사를 밝힌 정규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생회를 통해 모집된 참가자들과 이메일로 초기 접촉한 후 상호 협의 하에

비공개 페이스북 친구를 추가하고 페이스북 메신저로 매일 설문조사를 업로드하기로 확정하였다. 7일간의 조사에서 회수된 설문지 중 본 연구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답변이 있는 설문지 유럽 24부, 아시아 20부를 제외한 유럽 66부, 아시아는 70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일기 조사 결과 본 연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성별 분포는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 유럽(53.1%) 및 아시아 (58.9%) 모두에서 여자대학생들의 비율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학년을 연령의 대체변수로 사용한다. 학년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대체적으로 고루 분포되었으나, 유럽의 경우 4학년이 조금 낮게 조사된 반면 아시아의 경우 2학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었고 나이는 19세부터 26세까지로 조사되었다. 단, 영국의 경우 대학 학부는 3년이기에 예비대학(six form college) 2학년을 본 조사에서는 유럽 및 아시아 대학 1년으로 설정하여 조사하여 추가하였다. 페이스북 친구수는 유럽의 경우 500명 이상 (44.1%)과 300명에서 500명 사이 (28.7%)순이었으나, 아시아대학생의 경우 500명 이상이 71%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종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은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구분		명		빈도(%)	
		유럽	아시아	유럽	아시아
성별	남	31	29	46.9	41.1
	여	35	41	53.1	58.9
학년	1	18	21	27.5	30.4
	2	19	25	29.3	35.2
	3	17	12	25.1	16.7
	4	12	12	18.1	17.7
친구수	<100	5	2	7.5	2.8
	100-300	13	7	19.7	10.0
	300-500	19	11	28.7	15.7
	>500	29	50	44.1	71.5
총계		66	70	100	100

4.2 자료수집

연구 참여자에게 자신의 하루 혹은 일정기간동안 경험한 일상에 대해 일회 혹은 수회에 걸쳐 기록하게 하는 일기연구는 실험이나 회상을 통해 얻기 어려운 일상적인 심리 행동적 경험과 그것의 변화를 수집하고 탐색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다 (Allport, 1942; Wheeler & Reis, 1991; Bolger, Davis, & Rafaeli, 2003). 일기법은 연구대상이 실제 경험하는 일상을 기록하고 분석한다는 점에서 연구결과의 생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응답자가 평가해야 하는 자기 평가 기간에 대한 회상기간이 짧다는 점에서 기억의 오류나 회상편중에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응답자들이 하루 수차례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기록을 해야 한다는 점, 수집된 자료들을 비교분석하는데 복잡성 및 시계열 자료적 특성을 가진 수집된 자료의 유사성과 자기상관 문제 등으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스마트 폰의 보급 등으로 일상을 기록하기가 매우 편리해 졌으며, 정해진 시간에 자료의 작성 유무도 쉽게 판별할 수 있게 되어 높은 타당성과 낮은 회상편중이라는 일기연구의 장점을 강화하면서 사후기입을 막지 못하고 응답 준수율을 확인하기 어려운 단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Shiffman, Stone, & Hufforde,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의 초기 조사는 인구학적 변수(demographic variables)와 자아 존중감에 대해 시행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7일간의 일기 연구(시작일은 월요일)를 시행하였으며, 참여자들은 해당 기간 동안 매일 페이스북 및 인터넷 사용 패턴을 보고하게 하였다. 일기연구의 정확성과 사후기입을 막고 응답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응답자들은 페이스북 이용패턴을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설문지를 전송하도록 하였다. 현장 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일기연구 조사 기간 동안 주중에는 가장 빠른 액세스 시간은 오후 6시 20분, 늦어도 오후 11시 48분이었고, 주말의 경우 대체적으로 주중보다는 늦은 오후 10시 이후에 집중되고 있었다. 조사주간 동안 참가자의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응답자에게 연구 시작 전에 비공개 페이스북 친구 추가를 통해 메신저로 보고하기로 하였다. 7 일간의 조사 기간 최종일에 응답자들은 삶의 만족도 측정과 함께 최종 설문 조사에 참여하고 응답하였다.

4.3 측정도구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이용 관련 변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Ellison et al., 2007; Steinfield, Ellison, & Lampe, 2008; Orr et al., 2009; Lou, Yan, Nickerson, & McMorris,

2012.; Hong, Huang, Lin, & Chiu, 2014; 박현지·박영배, 2018, 2021)에서 활용된 문항을 망라하여 본 연구에 유용한 설문을 추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유럽과 아시아대학생 집단 각각 20명에게 사전 조사(pilot)를 실시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한 문항을 최종 확정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처리방법은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제시된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위계적 다중회귀모형을 이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경우 신뢰성 검증을 위해 Cronbach's alpha를 기본적으로 채택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경우 일기연구를 통한 새로운 분석을 시도하였기에 측정모형의 내적 일관성을 기존 연구들보다 세밀하게 측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AVE값(평균분산 추출값)을 사용하였으며, 기준 값은 .5이다. 둘째, 복합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값을 사용하였으며, 기준 값은 .7이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AVE값은 적극적 이용행동, 수동적 이용행동 및 조절변수 모두에서 공히 .6이상으로 나타났고, 복합신뢰도값 역시 모든 측정 변수에서 .8이상으로 확인되어 내적 일관성을 추가 확인할 수 있었다. 종합해보면, 본 연구의 추가적인 내적 일관성은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1) 적극적 페이스북 이용행동

본 연구에서 적극적 페이스북 이용행동은 포스팅, 댓글달기, 좋아요 및 채팅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포스팅, 댓글 및 '좋아요' 이용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오늘 페이스북에 포스팅, 댓글 및 '좋아요'를 한 횟수는 몇 번인가?”로 통합하였다. 또한, 페이스북의 채팅에 소요한 시간을 측정 문항은 “오늘 채팅에 소비한 시간은 얼마인가?”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경우 신뢰성 검증을 위한 유럽(아시아)대학생의 Cronbach's alpha는 포스팅은 .87(.88), 댓글은 .89(.89), '좋아요'는 83(.86) 및 채팅은 .89(.88)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한 적극적 페이스북 이용행동의 하위 변수들의 신뢰도가 .80이상으로 나타남에 따라 높은 내적 일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2) 수동적 페이스북 이용행동

본 연구에서 수동적 페이스북 이용행동은 수동적 팔로잉과 피드백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수동적 팔로잉 이용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오늘 뉴스읽기 및 다른 이용자들의 프로필 검색 등 페이스북 이용에 사용한 시간은 얼마인가?”이다. 이에 더하여 참가자들은 페이스북 이용에서 타인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오늘 내가 받은 피드백은 긍정적이었는가?”라는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경우 신뢰성 검증을 위한 유럽(아

시아)대학생의 Cronbach's alpha는 수동적팔로잉의 경우 .81(.83), 긍정적 피드백은 .84(.87)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한 변수의 신뢰도가 .80이상으로 나타남에 따라 높은 내적 일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3) 조절변수 측정

(1) 자아 존중감 측정

자아 존중감은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느낌, 평가 및 자기수용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며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첫날에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S)를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5문항은 긍정적 문항이고 5문항은 부정적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로, 역 문항은 역 채점하여 합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당시 Cronbach's alpha는 .92, 본 연구에서 유럽(아시아)대학생 자아존중감의 Cronbach's α 는 .89(.89)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한 변수의 신뢰도가 .80이상으로 나타남에 따라 높은 내적 일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2) 페이스북 이용시간

페이스북의 적극적/수동적 이용행동과는 별도로 페이스북을 이용한 전체 시간도 조절변수로 측정하였다. 페이스북 이용시간은 '하루 평균 페이스북 이용 시간(분)'으로 측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의 Cronbach's alpha는 유럽(아시아)대학생의 경우 .85(.89)로 양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한 변수의 신뢰도가 .80이상으로 나타남에 따라 높은 내적 일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하지만, 친구수의 경우 Cronbach's alpha는 유럽(아시아)대학생의 경우 .87(.88)로 양호했으나, 성별 및 학년 등의 인구통계학적 문항은 제외하였다.

4) 삶의 만족도 측정

삶의 만족도는 Diener, Emons, Larsen, & Griffin(1985)를 이용하여 설문조사의 최종일에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내용은 '문항1: 나는 대부분의 측면에서 내가 꿈꾸던 삶을 살고 있다', '문항2: 나는 좋은 조건에서 살고 있다', '문항3: 나는 내 삶에 대하여 만족한다', '문항4: 지금까지 나는 삶에서 내가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소유해왔다', '문항5: 만약 내 삶을 다시 살 수 있더라도, 나는

거의 아무 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이다. Diener 등(1985)과 동일하게 응답자는 각 문항에 대해 자신의 삶을 7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했으며(1=전혀 아니다, 7=매우 그렇다), Cronbach's alpha는 유럽(아시아)대학생의 경우 .84(.83)로 양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한 변수의 신뢰도가 .80이상으로 나타남에 따라 높은 내적 일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5. 연구결과

5.1 기초적 분석

본 연구에서 제시한 페이스북 이용행동 관련된 요인 및 페이스북 이용시간의 기초적 통계 분석의 결과는 <표2>에 제시하였다. 먼저, 페이스북의 적극적 이용행동 관련 요인은 “오늘 페이스북에 포스팅, 댓글 및 좋아요를 한 횟수는 몇 번인가?”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유럽 대학생들은 포스팅(M=0.85, SD=1.63)은 이용자의 비율이 30.3%로 많이 사용하지 않은 반면 댓글달기(M=3.55, SD=1.43)는 이용자 비율이 63.6%, ‘좋아요’(M=14.85, SD=6.63)는 이용자 비율이 90.9%로 이용 빈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아시아 대학생도 유럽 대학생들과 비슷한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포스팅(M=2.94, SD=1.72; 51.4%), 댓글달기(M=27.95, SD=8.60; 81.8%), ‘좋아요’(M=44.85, SD=19.15; 97.1%)로 이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조사되었다. 특히, ‘좋아요’의 경우 유럽대학생들은 6명, 아시아 대학생들은 2명을 제외하고는 매일 이용하고 있어 문화적 차이와는 상관없이 대학생들이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한 간편한 수단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게시글이나 사진 혹은 동영상 올리는 포스팅은 유럽의 경우 아주 낮게 조사되었으며, 아시아대학생들도 댓글이나 ‘좋아요’ 이용 빈도보다 낮다. 그 이유는 페이스북에 대한 관심, 이용 습관 혹은 팔로워의 반응 등에 따라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포스팅에 많은 시간을 들일 경우 학업, 수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자기 스스로의 내용을 포스팅하지 않고 그냥 타인의 담벼락이나 뉴스만을 읽는 수동적 페이스북 이용자의 경우 자신의 삶의 만족도가 저하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도 있다(Kramer, Guillory & Hancock, 2014).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다른 이용자와 공유하기를 원하거나 남에게 노출하고 싶은 정보를 제공하고, 프로필을 통해 직업이나 학력 등의 개인 정보를 제시하기도 하고 지인의 글에 대해 ‘좋아요’나 ‘댓글’을 게시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 공간에서 자아정체성을 표출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에 따른 것이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존재와 정체성을 인식시키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쾌락을 느낀다. 페이스북 이용자들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을 알려 이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하려는 것이다(Hollenbaugh & Ferr, 2014).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아시아 대학생들이 유럽 대학생들 보다 페이스북 이용행동에 있어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인식시키고자 하는 욕망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채팅의 경우 문화적 차이와 관계없이 유럽($M=40.14$, $SD=80.51$; 95.4%)과 아시아($M=78.29$, $SD=88.91$; 100%) 대학생 모두 매우 높은 이용 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인 대학생들은 페이스북 이용행동 중에서 채팅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페이스북의 수동적 이용행동에 관한 요인 중 먼저 수동적 팔로잉을 이용하는 시간은 유럽 대학생($M=29.83$, $SD=24.23$; 95.4%)은 매우 높게 조사되었으나, 아시아 대학생($M=12.10$, $SD=8.42$; 50.0%)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의 경우 네이버(Naver), 다음(Daum) 등의 뉴스 포털사이트가 국내외의 주요 이슈 포함 전체적인 이슈를 거의 실시간을 업로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용자가 많이 본 기사별, 대중들이 가장 많이 보는 기사 순서별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페이스북의 뉴스피드 기능을 적게 이용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믹시(Mixi), 중국의 경우 QQ 등도 같은 사례이다. 이는 대학생들의 문화적 차이에 따른 요인보다는 사회환경적 요인에 따른 문제일 수도 있다. 특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잘 정비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페이스북 이용 뉴스피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도 추론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피드백의 경우 유럽대학생($M=1.37$, $SD=3.54$; 21.2%)과 아시아대학생($M=3.91$, $SD=1.68$; 28.5%) 모두에게서 이용 빈도가 크게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요인 중 취업과 성적임을 고려한다면 피드백보다는 학업을 위한 목적의 페이스북 이용행동이 우선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용자가 받은 피드백의 느낌은 유럽과 아시아 모두에서 응답자의 37%정도는 친근하기도, 비우호적이지도, 친절하기도, 매우 친절하지도 않다고 응답하였고, 흥미롭게도 유럽과 아시아대학생의 경우 응답자 중 누구도 비우호적인 댓글이나 담벼락 게시물을 받았다고 답하지 않았다. 즉, 대학생들은 문화적 차이와 상관없이 그들이 받는 피드백은 모두 긍정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학생들은 같은 사회적 환경에 속해 있고 친밀한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긍정적 감정을 타인에게 퍼트리고 타인의 감정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물결효과(riffle effect)’에 의한 긍정적 감정전염이라고 볼 수 있다(Barsade, 2002).

셋째, 페이스북 이용시간의 경우 유럽대학생(M=47.91, SD=48.59; 93.9%)과 아시아대학생(M=63.29, SD=60.15; 97.1%) 모두에게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유럽은 68.4분과 아시아는 70.3분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적 차이와 상관없이 대학생들에게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2세대 및 3세대 소셜미디어 포함)는 자신을 표현하고, 소통하며 지속적 관계유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자신의 일상과 분리할 수 없는 ‘미디어의 일상화’ 혹은 ‘일상의 미디어화’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Deuze, 2011).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측정 변수의 왜도는 유럽대학생의 경우 절대값이 가장 높은 경우 1.83으로 3을 넘지 않았고, 첨도의 경우 가장 높은 절대값이 3.80으로 10을 넘지 않아 모두 정규분포성 조건을 충족시켰다. 또한 아시아대학생의 경우 역시 절대값이 가장 높은 경우 1.79로 3을 넘지 않았고, 첨도의 경우 가장 높은 절대값이 4.52으로 10을 넘지 않아 모두 정규분포성 조건을 충족시켰다.(Kline, 2005).

<표2> 유럽 및 아시아대학생의 기초적 분석 결과

변수		M(SD)	Min	Max	이용자비율(%)	왜도	첨도
포스팅	유럽	0.85(1.63)	0	9	30.3	1.47	6.76
	아시아	2.94(1.72)	0	10	51.4	1.42	3.40
댓글	유럽	3.55(1.43)	0	42	63.6	.42	2.60
	아시아	27.95(8.60)	0	42	97.1	.51	2.93
좋아요	유럽	14.85(6.63)	0	130	90.0	1.07	1.05
	아시아	44.85(19.15)	0	170	97.1	1.29	1.81
채팅	유럽	40.14(80.51)	0	420	95.4	1.57	2.39
	아시아	78.29(88.91)	0	395	100	1.79	4.52
수동적팔로잉	유럽	29.83(24.23)	0	174.32	95.4	.94	1.14
	아시아	12.10(8.42)	0	145.93	50.0	1.03	2.19
피드백	유럽	1.37(3.54)	0	40.97	21.2	1.83	3.60
	아시아	3.91(1.68)	0	45.21	28.5	1.24	2.48
페이스북 이용시간	유럽	83.43(121.90)	0	313.94	100	1.81	3.80
	아시아	85.24(96.12)	0	309.21	100	1.49	2.47

5.2 가설검정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첫째, 채팅, 수동적 팔로잉 및 페이스북 이용시간 등 주요 변수 이용에 사용된 시간에 대해 연구 기간 전체 기간(7일) 동안의 총 이용 시간을 분 단위로 계산하였다. 둘째, 연구 참가자 개인 당 포스팅 수가 적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포스팅 변수는 회귀 모델에 더미(dummy)로 처리되었다(0=연구 기간인 7일 동안 작성된 게시물 없음, 1=적어도 하나의 게시물 작성). 셋째, 댓글과 ‘좋아요’는 빈도가 높게 측정되어 연구 기간 전체 요일의 합계(절대 값)을 이용하였다. 넷째, 응답자들이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피드백만을 받았다고 조사되었기에 피드백 느낌에 대한 점수(0=피드백 없음, 1=비우호적이지도 친절하지도 않음, 2=친절함, 3=매우 친절함)로 하여 새로운 긍정 피드백 요인으로 재 코딩하였다. 다섯째, 유럽대학생의 경우 19번 응답자는 피드백 (다른 사람의 댓글 또는 답변 게시물)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감정에 대한 평가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아시아대학생의 경우 이런 사례는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는 ‘0’ 범주로 처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에 본 연구의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설문지를 통해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 회귀모형(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model)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1단계는 조절변수인 성별, 학년, 친구 수 및 자아 존중감이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단계의 분석에서는 1단계에 사용한 조절변수에 더하여 포스팅 횟수, 댓글작성 횟수, ‘좋아요’ 수, 채팅시간, 수동적 팔로잉, 피드백을 예측변수로 추가하였다. 측정변수들의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가 유럽대학생은 1.96이며 아시아 대학생은 1.85로서 모두에서 임계 값 2보다 낮으므로 독립 변수 간에 다중 공선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Miles and Shevlin, 2001). 가설검정의 결과는 <표3>에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시되었다.

첫째, 1단계 모델의 분석에서 유럽과 아시아의 문화적 차이와 상관없이 공히 자아 존중감이 유일하게 유의한 예측 변수였으며, 삶의 만족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와도 같은 결과이다(Campbell, 1981). 자아존중감은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Diener and Diener, 1995)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조절 변수로 알려져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해 유럽($\beta=0.48$, $p<0.01$)과 아시아($\beta=0.52$, $p<0.01$) 대학생 모두에서 기존의 연구결과와 동일함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자신에 대해 좋은 느낌이 독립적 개인주의 문화인 서양 사회에서 필수적인 속성이지만, 상호의존적 공동주의 문화인 동양 사회에서도 필수적인 속성임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Campbell, 1981; Diener and Diener, 1995).

<표3> 유럽 및 아시아대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분석 결과

단계	변수		모형					임시(ad hoc)모형		
			β	t	VIF	TOL	가설	결과	β	t
1	성별	유럽	.04	.29	1.13	.779				
		아시아	.05	.32	1.20	.853				
	학년	유럽	-.05	-.41	1.13	.795				
		아시아	-.05	-.39	1.21	.887				
	친구수	유럽	-.08	-.82	1.12	.716				
		아시아	-.07	-.08	1.23	.773				
	자존감	유럽	.48	4.93**	1.12	.807				
		아시아	.52	4.98**	1.21	.851				
	Adjust R2=.213(.239), F=4.989*** (5.507***)									
	2	성별	유럽	.09	.74	1.32	.719			-.03
아시아			.06	.68	1.33	.743			-.42	-.25
학년		유럽	-.06	.73	1.38	.792			.04	.25
		아시아	-.09	.81	1.39	.798			.51	.37
친구수		유럽	-.15	.85	1.24	.769			-.09	-.34
		아시아	.20	-.88	1.38	.807			-.88	-.29
자존감		유럽	.54	4.82**	1.20	.759			.52	4.92**
		아시아	-.58	4.93**	1.33	.726			.59	4.99**
포스팅		유럽	.29	2.98	1.32	.773	H1	채택		
		아시아	-.32	3.51**	1.33	.802	H1	채택		
댓글달기		유럽	-.04	-.29	1.30	.791	H2	기각		
		아시아	.42	-3.84**	1.29	.815	H2	채택		
좋아요		유럽	.15	1.25	1.30	.807	H3	기각		
		아시아	.16	1.20	1.29	.853	H3	기각		
채팅		유럽	.38	2.95**	1.94	.792	H4	채택		
		아시아	-.53	4.29***	1.85	.778	H4	채택		
수동적 팔로잉		유럽	-.26	-2.28**	1.52	.743	H5	채택		
		아시아	-.29	-2.32**	1.52	.804	H5	채택		
피드백		유럽	-.15	-1.24	1.69	.783	H6	기각		
		아시아	-.70	-2.71**	1.68	.771	H6	채택		
페이스북 이용시간	유럽	-	-	1.24	.756	-	-	.12	.93	
	아시아	-	-	1.30	.796	-	-	.14	.98	
ΔR2=.322(.362), Adj R2=.310(.347) F=6.663*** (7.995***)								ΔR2=.119(.181), AdjR2=.103(.162), F=7.651*** (9.379***)		

* p<.05, ** p<.01, *** p<.001

주1) ΔR2, Adj R2, F값은 유럽(아시아)대학생 값임.

하지만, 인구학적 조절변수인 경우 유럽대학생의 성별($\beta=0.04, p<0.01$), 학년($\beta=0.05, p<0.01$) 및 친구수($\beta=0.08, p<0.01$) 그리고 아시아대학생의 성별($\beta=0.05, p<0.01$), 학년($\beta=0.05, p<0.01$) 및 친구수($\beta=0.07, p<0.01$)로 모두에서 삶의 만족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성별을 제외한 학년 및 친구수는 모두 음의 관계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조성희와 박소영(2015)의 연구와 같은 맥락임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2단계 분석을 통해 적극적 페이스북 이용행동의 경우 유럽대학생들은 포스팅($\beta=0.29, p<0.05$)과 채팅($\beta=0.38, p<0.05$)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되어 가설 1과 4는 채택되었다. 하지만, 댓글($\beta=-0.04, p<0.05$)과 ‘좋아요’($\beta=0.15, p<0.05$)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어 가설 2와 3은 기각되었다. 반면, 아시아대학생의 경우 포스팅($\beta=0.34, p<0.05$), 댓글($\beta=-0.42, p<0.05$) 및 채팅($\beta=0.53, p<0.05$)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되어 가설 1, 2 및 4가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의 기초적 분석에서와 같이 아시아대학생들이 유럽대학생들보다 채팅을 더 많이 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이는 상호의존적 성향이 높은 문화적 배경에서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럽의 대학생보다 더 중요시한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좋아요’ ($\beta=0.16, p<0.05$)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어 가설 3은 기각되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새롭게 추가한 수동적 팔로잉의 경우 유럽($\beta=-0.26, p<0.05$)과 아시아($\beta=-0.29, p<0.05$)대학생 모두에서 페이스북 이용자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되어, 가설 5는 채택되었다. 이 결과는 문화적 차이에 상관없이 대학생들의 수동적 팔로잉은 주로 뉴스 읽기 혹은 정보 검색 등 수동적인 활동에 집중되어져있어 삶의 만족도와는 관련이 없는 것임을 추론해볼 때 흥미로운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페이스북 이용자가 자신의 삶의 만족도에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정보와 비사회적 정보를 구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부러움(Krasnova et al., 2013), 사회적 과부하(Maier et al., 2012) 또는 질투(Muise et al., 2009)와 같은 부정적 결과를 사회적 정보와 연계하여 이질적인 효과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넷째, 피드백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는 유럽대학생($\beta=0.15, p>0.05$)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가설 6이 기각되었지만, 아시아대학생($\beta=0.70, p>0.05$)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발견하였기에 가설 6은 채택되었다. 이런 상반된 결과는 본 연구에 참여한 페이스북 이용자는 댓글작성의 빈도가 낮고 부정적인 댓글이 없다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지만, 아시아의 경우에는 같은 피드백을 받았음에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된 것은 아시아권의 상호의존적 사회 문화에 따른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하지만, 유럽대학생들은 타인과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한 피드백의 유형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모형 1의 설명력(수정 R^2)은 유럽의 경우 .213, 아시아의 경우 .219이며, F값은 유럽의 경우 4.989, 아시아의 경우 5.507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조절변수에 더하여 예측 변수인 포스팅 횟수, 댓글작성 횟수, ‘좋아요’ 수, 채팅시간, 수동적 팔로잉, 피드백이 추가로 투입된 모형 2에서는 R^2 변화량이 유럽대학생은 .322, 아시아대학생은 .362로 1단계 회귀식보다 더욱 상승하여 예측변수가 포함된 모델이 삶의 만족도를 더욱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변화량은 유럽대학생의 경우 3.94, 아시아대학생의 경우 4.15로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5.3 페이스북 이용시간의 영향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델을 연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전통적인 측정 방법과 비교하기 위해 임시 모형(ad hoc model)을 추가로 설정하고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표3>에 정리되어져 있다. 이를 위해 2단계 분석 시 페이스북 이용시간 변수만 추가하였다. 하지만, 예측변수인 페이스북 이용시간은 삶의 만족도에 대해 유럽대학생($\beta=0.12, p>0.05$)과 아시아대학생($\beta=0.14, p>0.05$)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페이스북 이용시간에 포스팅, 채팅, 뉴스 피드 검색 등 다양한 활동을 하나의 변수로 통합하여 측정하게 되면 본 연구에서 살펴 본 활동적 참여의 긍정적 효과와 수동적 팔로잉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변별력이 없어지게 된다. 이처럼 소셜미디어와 같은 이용자의 개인적 심리특성과 연관된 연구에서는 매우 유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제안은 Koroleva et al. (2011)이 제안한 것과 같이 변수간의 인과관계 결과를 더 적절하게 이해하기 위해 선정된 변수들의 차별적인 적용을 심사숙고해야 한다.

6.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유럽과 아시아대학생들의 페이스북 이용행동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독립적 개인주의문화와 상호의존적 집단문화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러한 차이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분석하기 위해 유럽 5개국 대학생과 아시아 3개국대학생을 비교 연구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설문조사의 회상편중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기연구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일기연구는 소셜미디어 관련 연구에 거의 사용되지

않았지만,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최근에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페이스북의 이용행동을 적극적 이용행동과 수동적 이용행동으로 세분화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기에 기존 연구들의 통합적 자료의 편향을 피하는 동시에 이용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기본적 분석에 따르면 페이스북 이용행동이 유럽대학생의 독립적 개인주의문화와 아시아대학생의 상호의존적 집단문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가설 1과 4의 경우 유럽과 아시아대학생들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채택되었다. 가설 1의 경우 페이스북 친구들과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이용자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가설 4의 채팅 기능을 통해 즉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쉽게 할 수 있어 스트레스를 풀고 정서적 안정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와도 같다(Utz & Maa, 2018; Tamir & Mitchell, 2012; QuanHaase & Young, 2010).

둘째, 가설 2의 경우 유럽대학생들은 기각되었지만, 아시아대학생들에게는 가설이 채택되었다. 이런 상반된 결과는 유럽과 아시아의 독립적 개인주의문화 혹은 상호의존적 집단문화 성향의 차이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상호의존적 성향이 높은 문화적 배경에서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럽 대학생보다 더 중요시한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자기 과시적이고 자기애의 성향인 포스팅(Hum et al., 2011; Peluchette and Karl, 2009)과 달리 댓글은 전형적으로 자기중심적 성향이 적고 주로 주어진 토론 주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는 경향이 높다. 결론적으로 커뮤니케이션에서 종종 긍정적 효과와 관련되어 있지만 자기 과시적 요소는 사라지게 된다(Gonzales and Hancock, 2011). 또한 댓글은 대부분의 경우 비동기식으로 이루어지며 네트워크 참여자들은 서로 동시 대화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즉각적인 정서적 안정과 문제 해결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셋째, 가설 3은 유럽과 아시아대학생 모두에게서 기각되었다. 이 결과는 ‘좋아요’가 페이스북의 수동적 이용과 능동적 이용 사이에 놓여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의미 있는 대화를 시작하려는 진지함보다는 “나는 당신을 듣고 있습니다(I hear you)”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Bosch, 2013).

넷째, 가설 5는 유럽과 아시아대학생 모두에게서 채택되었다. 즉, 뉴스 피드를 수동적으로 팔로우하고 다른 사람의 프로필을 살펴보는 것은 유럽과 아시아대학생의 삶의 만족도를 낮춘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동일함을 알 수 있다(Krasnova et al., 2013; Haferkamp & Kraemer, 2011; Maier et al., 2012). 특히, Krasnova et al., (2013)는 뉴스 피드의 정보 과부하가 SNS에 대한 짜증과 좌절을 유발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더하여 수동적 팔로잉은 시간적 소요가 많이

되는 활동이기에 학교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이용자의 학교 성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Ahn, 2011). 결론적으로 뉴스 피드를 탐색하고 다른 사람의 프로필을 살펴보는 것은 대학생들이 페이스북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이용행동으로 페이스북 이용 시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에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다섯째, 가설 6의 경우 유럽대학생의 경우 기각되었으나, 아시아대학생의 경우에는 채택되었다. 특히, 상호 의존적 사회 문화에 익숙한 아시아대학생들의 경우 피드백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새로운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와 동일함을 알 수 있다(Dogan, 2016). 이는 아시아대학생들의 긍정적 피드백은 사이버불링과 문제적 이용을 완화시키는 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이 문제 역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결과는 페이스북 이용행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어 일기연구를 이용하여 자료의 회상편중 현상을 줄이고자 하였으며, 기존 연구보다 세분화된 페이스북 이용행동 요인을 통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독립적 개인주의문화와 상호의존적 집단문화 성향 차이에 따른 비교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다양한 페이스북 이용행동이 대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유럽 및 아시아 대학생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들의 일상화된 ‘페이스 북’현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일기연구를 통하여 연구를 수행하였기에 표본수의 제한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일기연구를 이용하였기에 참여자들의 심각한 회상편중 문제를 줄일 수 있어 자료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둘째, 게임에 대한 분석 자료의 부족으로 본 연구에서 게임을 하위변수로 채택하지 못한 점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여 게임 관련 요인별 특성에 따른 페이스북 활용정도 및 삶의 만족도의 상호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Diener et al. (1985)의 삶의 만족도 척도를 이용하였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민선(2008)『인간 커뮤니케이션 비서구적 관점』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박현지·박영배(2018)「HEXACO 성격유형과 소셜미디어 이용동기: 한국과 일본 대학생의 비교연구」『일본근대학연구』61, pp.245-264

- _____ 2021) 「소셜미디어의 과도한 이용과 문제적 이용 관계에서 이용 동기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일본 대학생을 중심으로」 『일본근대학연구』 71, pp.285-308
- 이경탁 외(2013) 「SNS사용자의 외로움, 자기노출, 사회적지지 그리고 삶의 만족에 관한 실증연구」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제13권 제2호, pp.19-39
- 이경준·송희경(2016) 「중고령자의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성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4호, pp.757-769
- 양혜승·김진희·서미혜(2014) 「페이스북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가?」 『한국언론학보』 58(6), pp.215-244
- 송인덕(2016) 「페이스북 이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3(4), pp.209-254
- 조성희·박소영(2015) 「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초기 청소년을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23(4), pp.801-818
- Ahn, J. (2011). The effect of social network sites on adolescents' social and academic development: Current theories and controversies. *Journal of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62(8), pp.1435-1445
- Almeida, M. (2005). Resilience and vulnerability to daily stressors assessed via diary method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4(2), pp.64-68
- Allport (1942). The use of personal documents in psychological science: Prepared for the committee on appraisal of research.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 Appel, H., Gerlach, L. & Crusius, J. (2016). The interplay between Facebook use, social comparison, envy, and depression.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9, pp.44-49
- Barash, V., Ducheneaut, N., Isaacs, E. and Bellotti, V. (2010). Faceplant: Impression (Mis)Management in Facebook status updates. *Proceedings of the Fourth International AAAI Conference on Weblogs and Social Media*.
- Barker, V. & Ota, H. (2011). Mixi diary versus Facebook photos: Social networking site use among Japanese and Caucasian American females. *Journal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Research*, 40, p.3963
- Barsade, S. (2002). The ripple effect: Emotional contagion and its influence on group behavior.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7(4), pp.644-675
- Baym, K. (2010). *Personal connections in the digital age*. Malden, MA: Polity.
- Bolger, N., Davis, A. & Rafaeli, E. (2003). Diary methods: Capturing life as it is lived. *Annual Review Psychology*, 54, pp.579-616
- Bonanno, A. & Hymel, S. (2013). Cyber Bullying and Internalizing Difficulties: Above and Beyond the Impact of Traditional Forms of Bullying. *J Youth Adolescence*, 42, pp.685-697
- Bosch, T. (2013). On Facebook, "Like" can mean "Dislike". "Got over it. Available: http://www.slate.com/blogs/future_tense/2013/04/03/dislike_button_why_facebook_doesn_t_need_one.html
- boyd, D. (2006). Friends, friendsters, and top 8: Writing community into being on social network sites. *First Monday*, 11(12) Available: <https://firstmonday.org/ojs/index.php/fm/article/download/1418/1336>
- Brailovskaia, J., Strose, F., Schillack, H. & Margraf, J. (2020). Less Facebook use: More well-being and a healthier lifestyle? An experimental intervention study. *Computers in Human Behavior*, 108, pp.1-9
- Brandtzaeg, B & Heim, J. (2016). A typology of social networking sites users. *International Journal of Web Based Communities*. 7(1). Elsevier. pp.28-51
- Business of Apps (2020). "Number of downloads of TikTok app worldwide from 1st quarter 2017 to 3rd quarter 2019 (in millions)", Statista, Available at: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078692/china-tiktok-worldwide-downloads-quarterly/> (accessed

5 January 2020).

- Campbell, A. (1981). *The sense of well-being in America: Recent patterns and trends*. New York, McGraw-Hill.
- Chai, M. (2020). Does cultural difference matter on social media? An examination of the ethical culture and information privacy concerns. *Sustainability*, 12(19), p.8286
- Chen, G. M. (1993). Self-disclosure and Asian students' abilities to cope with social difficultie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Psychology*, 127(6), pp.603-610
- Cho, S. E., & Park, H. W. (2012). A qualitative analysis of cross-cultural new media research: SNS in Asia and the West. *Quality & Quantity*.
- Cotten, R. (2008). Students' technology use and the impacts on well-being. *New Directions for Student Services*, 124, pp.55-70
- Crocker, J., and Park, L. E.(2004). The costly pursuit of self-esteem. *Psychological Bulletin*, 13(3), pp.392-414
- Davila, J., Hershenberg, R., Feinstein, A., Gorman, K., Bhatia, V. & Starr, R. (2012). Frequency and quality of social networking among young adults: Associations with depressive symptoms, rumination, and corumination. *Psychology of Popular Media Culture*, 1(2), pp.72-86
- Desilver, D. (2015). U.S.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still lags that of their peers in many other countries. Pew Research Center.
- Deuze, M. (2011). Media life. *Media, Culture & Society*, 33(1), pp.137-148
- Diener, E. (1994). Assessing subjective well-being: Progress and opportunit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1(2), pp.103-157
- Diener, E. & Diener, M. (1995). Cross-cultural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4), p.653
- Diener, E., and Fujita, F.(2005). Life satisfaction set point: Stability and chang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1), pp.158-164
- Diener, E., Oishi S. & Lucas, E. (2003). Personality,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Emotional and cognitive evaluations of lif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4(1), pp.403-425
- Diener, Ed., Suh, E., Lucas, R. & Smith, H.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2), pp.276-302
- Diener, Ed., Emmons, R., Larson, R.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pp.71-75
- Donnellan, M. B., Trzesniewski, K. H., & Robins, R. W.(2006). Personality and self-esteem development in adolescence. In D. K. Mroczek & T. D.Little(Eds.), *Handbook of Personality Development*, pp.285-309.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Dolev-Cohen, M. & Barak, A. (2012). Adolescents' use of instant messaging as a means of emotional relief.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9(1), pp.58-63
- Ellison, N., Steinfield, C. & Lampe, C. (2007). The benefits on Facebook "friends": Social capital and college students use of online social network sites.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2(4), pp.1143-1168
- Erickson, E. H. (1959). Identity and the life cycle: Selected papers. *Psychological Issues*, 1, pp.1-171
- Eroglu, Y. (2016). Inter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Styles and Facebook Addiction. *Journal of Education and Training Studies*, 4(1), pp.150-160
- Fogg, J. & Iizawa, D. (2008). Online persuasion in Facebook and Mixi: A cross-cultural compariso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ersuasive Technology*, 5033, pp.35-46
- Fox, J. & Moreland, J. (2015). The dark side of social networking sites: An exploration of the relational and

- psychological stressors associated with Facebook use and affordance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45, pp.168-176
- Gonzales, L. & Hancock, T. (2011). Mirror, mirror on my Facebook wall: Effects of exposure to Facebook on self-esteem.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4(1-2), pp.79-83
- Gramlich J. (2019). 10 Facts About Americans and Facebook
<http://www.pewresearch.org/fact-tank/facts-about-americans-and-facebook>.
- Grieve, R., Indian, M., Witteveen, K., Anne Tolan, G. & Marrington, J. (2013). Face-to-face or Facebook: Can social connectedness be derived onlin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9(3), pp.604-609
- Gross, F., Juvonen, J. & Gable, L. (2002). Internet use and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social issues*, 58(1), pp.75-90
- Haferkamp, N. & Kraemer, C. (2011). Social comparison 2.0: Examining the effects of online profiles on social-networking sites.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4(5), pp.309-314
- Hall, E. T. (1976). *Beyond culture*. New York: Anchor Books.
- Hampton, K., Goulet, S., Marlow, C. & Rainie, L. (2012). Why most Facebook users get more than they give.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
- Hattie and Timperley, (2007). The power of Feedback.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77(1), pp.81-112
- Hofstede, G. (1991). Empirical models of cultural differences. In N. Bleichrodt & P. J. D. Drenth (Eds.), *Contemporary issues in cross-cultural psychology*, Swets & Zeitlinger Publishers, pp.4-20
- Hofstede, G. (2001). Culture's recent consequences: Using dimension scores in theory and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Cross-Cultural Management*, 1(1), pp.11-17
- Hollenbaugh, E. & Ferr, A. (2014). Facebook self-disclosure: Examining the role of traits, social cohesion, and motive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30, pp.50-58
- Hong, FY., Huang, DH., Lin, HY. & Chiu, SL. (2014). Analysis of the psychological traits, Facebook usage, and Facebook addiction model of Taiwanese university students. *Telematics and Informatics*, 31(4), pp.597-606
- Huang, H. & Leung, L. (2009). Instant messaging addiction among teenagers in China: Shyness, alienation, and academic performance decrement. *CyberPsychology & Behavior*, 12(6), pp.675-679
- Hum, J., Chamberlin, E., Hambright, L., Portwood, C., Schat, C. & Bevan, L. (2011). A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 A content analysis of Facebook profile photograph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7(5), pp.1828-1833
- Ilgen, R., Fisher, D., & Taylor, S. (1979). Consequences of individual feedback on behavior in organiza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4(4), pp.349-371
- James, C. et al. 2017. "Digital Life and Youth Well-being, Social Connectedness, Empathy, and Narcissism", *Pediatrics* 140, pp.71-75
- Joinson, N. (2008). "Looking at", "looking up" or "keeping up with" people? Motives and uses of Facebook. CHI 2008 Proceedings: Online social networking, pp.1027-1036
- Junco, R.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frequency of Facebook use, participation in Facebook activities, and student engagement. *Computer & Education*, 58(1), pp.162-171
- Jeong, E. S., & Lee, J. Y.. (2014). Developmental Trajectory of Self-esteem Youth-Focusing on Gender Difference. Korea Welfare Panel Study Conference, pp.473-489
- Kalpidou, M., Costin, D. & Morris, J.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Facebook and the well-being of undergraduate college students.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4(4), pp.183-189
- Kang, K. H., & Hong, J. B. (2007). A comparison of Korean and U.S. American communication apprehension:

- Based on inter- cultural and intercultural interaction. *Speech & Communication*, 8, pp. 313-347.
- Kline, T. (2005). *Psychological testing: A practical approach to design and evaluation*. Sage.
- Kim, JW. & Chock, M. (2015). Body image 2.0: Associations between social grooming on Facebook and body image concern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48, pp.331-339
- Kim, J. & Lee, R. (2011). The Facebook paths to happiness: Effects of the number of Facebook friends and self-presentation on subjective well-being.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4(6), pp.359-364
- Kim, Y., Sohn, D. & Choi, S. (2011). Cultural difference in motivations for using social network sites: A comparative study of American and Korean college student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7(1), pp.365-372.
- Kim, Y., Chung, N. & Ahn, M. (2013). Why people use social networking services in Korea the mediating role of self-disclosure on subjective well-being. *Information Development*, pp.1-12
- Kinder, K. (2012). "You have a Farmville gift request"-Thesen zum erfolg von social casual gaming auf Facebook. *Kommunikation @ Gesellschaft- Journal fur alte und neue Medien aus soziologischer, kulturanthropologischer und kommunikationswissenschaftlicher Perspektive*, 13.
- Ko, H., Yen, Y., Liu, C., Huang, F. & Yen, F. (2009). The association between aggressive behaviors and internet addiction and online activities in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4(6), pp.598-605
- Kokkinos, C & Saripanidis, I. (2017). A lifestyle exposure perspective of victimization through Facebook among university students. Do individual differences matter?. *Computers in Human Behavior*, 74, pp.235-245
- Koroleva, K., Krasnova, H., Veltri, F. & Gunther, O. (2011). It's all about networking! Empirical investigation of social capital formation on social network sites. *ICIS 2011 Proceedings*.
- Kramer, A., Guillory, J. & Hancock, J. (2014). Experimental evidence of massive-scale emotional contagion through social network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11(24), pp.8788-8790
- Krasnova, H., Wenninger, H., Widjaja, T & Buxmann, P. (2013). Envy on Facebook: A hidden threat to users' life satisfaction?. *Wirtschaftsinformatik*, 92.
- R. Kraut, M. Patterson, V. Lundmark, S. Kiesler, T. Mukopadhyay, and W. Scherlis, "Internet paradox: A social technology that reduce social involvement and psychological well being?," *American Psychology*, 53(9), pp.1071-1031
- Kross, E., Verduyn, P., Demiralp, E., Park, J., Lee, S., Kin, N., Shablack, H., Jonides, J & Ybarra, O. (2013). Facebook use predicts in subjective well-being in young adults. *PloSone*, 8(8), e69841
- Lee, G., Lee, J., & Kwon, S. (2011). Use of social-networking sites and subjective well-being: A study in South Korea.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4(3), pp.151-155
- Lenhart, A., Purcell, K., Smith, A. & Zickuhr, K. (2013). *Social media and young adults*. Pew Internet and American Life Project.
- Lewis, C. & George, J. (2008). Cross-cultural deception in social networking sites and face-to-face communication.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4(6), pp.2945-2964
- Li, X, Chen, W. & Popiel, P. (2015). What happens on Facebook stays on Facebook? The implications of Facebook interaction for perceived, receiving, and giving social support. *Computers in Human Behavior*, 51, pp.106-113
- Lo, K., Wang, C. & Fang, W. (2005). Physical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social anxiety among online game players. *CyberPsychology & Behavior*, 8(1), pp.15-20
- Lou, L., Yan, Z., Nickerson, A. & McMorris, R. (2012). An examination of the reciprocal relationship of loneliness

- and Facebook use among first-yea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Computing Research*, 46(1), pp.105-117
- Lyubomirsky, S., Sheldon, K. M., & Schkade, D.(2005). Pursuing happiness: The architecture of sustainable change.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9(2), pp.111-131
- Maier, C., Laumer, S., Eckhardt, A. & Weitzel, T. (2012). When social networking turns to social overload: Explaining the stress, emotional exhaustion, and quitting behavior from social network sites' users. *ECIS 2012 Proceedings*.
- Manago, A., Ward, M., Lemm, K., Reed, L. & Seabrook, R. (2015). Facebook Involvement,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Body Shame, and Sexual Assertiveness in College Women and Men. *Sex Roles*, 72, p.114
- Markus,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pp.224-253
- Meier, E. P. and Gray, J. (2014). Face book photo activity associated with body image disturbance in adolescent girls.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7, pp.199-206
- Miles, J. & Shevlin, M. (2001). *Applying regression and correlation: A guide for students and researchers*. London: Sage.
- Muise, A., Christofides, E. and Desmarais, S. (2009). More information than you ever wanted: Does Facebook bring out the green-eyed monster of jealousy?. *Cyber Psychology & Behavior*, 12(4), pp.441-444
- Nisbett, R. E. (2003). *The geography of thought: How westerners and Asians think differently and why*.
- Nesbit, R. E., Peng, K., Choi, I., & Norenzayan, A. (2001). Culture and systems of thought: holistic versus analytic cognition. *Psychological review*, 108(2), p.291
- Oh, HJ., Ozkaya, E. & LaRose, R. (2014). How does online social networking enhance life satisfaction? The relationships among online supportive interaction, affect, perceived social support, sense of community, and life satisfaction. *Computers in Human Behavior*, 30, pp.69-78
- Orr, E., Ross, C., Sisic, M., Arseneault, J., Simmering, M. & Orr, R. (2009). Personality and motivations associated with Facebook us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5(2), pp.578-586
- Orth, U., & Robins, R. W.(2014). The development of self-esteem.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3(5), pp.381-387
- Pantic, I., Damjanovic, A., Todorovic, J., Topalovic, D., Bojovic-Jovic, D., Ristic, S. & Pantic, S. (2012). Association between online social networking and depression in high school students: Behavioral Physiology Viewpoing. *Psychiatria Danubina*, 24(1), pp.90-93
- Peluchette, J. & Karl, K. (2009). Examining students' intended image on Facebook: "What were they thinking?!". *Journal of Education for Business*, 85(1), pp.30-37
- Pempek, T., Yermolayeva, Y. & Calvert, S. (2009). College students' social networking experiences on Facebook.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30(3), pp.227-238
- Qiu, L., Lin, H., Leung, A. & Tov, W. (2012). Putting their best foot forward: Emotional disclosure on Facebook.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5(10), pp.569-572
- Quan-Haase, A. & Young, L. (2010). Uses and gratifications of social media: A comparison of Facebook and instant messaging. *Bulletin of Science, Technology & Society*, 30(5), pp.350-361
- Rosenberg, M. (1965). 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Measures Package*, 61.
- Sagioglou, C. & Greitemeyer, T. (2014). Facebook's emotional consequences: Why Facebook causes a decrease in mood and why people still use it. *Computers in Human Behavior*, 35, pp.359-363

- Schneider, C., Katzer, C & Leest, U. (2013). Cyberlife-Spannungsfeld zwischen faszination und gefahr. Cybermobbing Bei Schulerinnen Und Schulern. Karlsruhe: Bundnis gegen Cybermobbing e. V.
- Shakya, H. & Christakis, N. (2017). Association of Facebook use with compromised well-being: A longitudinal study.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85 (3), pp. 203-211.
- Shiffman, S., Stone, A. & Hufford, M. (2008). Ecological momentary assessment.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4, pp.1-32
- Shin, S, H., Lee, E, J., Yu, L. H., & Bae., Y (2010). Mediation and Moderation Effect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Self-Esteem in the Relations between Competence and Aggression. *Korean Journal of Studies*, 17(4), pp.103-125
- Singelis, T. (1994). The measurement of independent and interdependent self-constru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5), pp.580-591
- Smith, A & Anderson, M. (2018). Social Media Use in 2018
<http://www.pewinternet.org/2018/03/01/social-media-use-in-2018/> website.
- Soron, R. & Tarafder, A. (2015). The relation between Facebook use pattern and demographic factors. *Journal of Psychiatry*, 18(6), pp.1-5
- Spiliotopoulos, T., Karnik, M., Oakley, I., Venkatanathan, J. & Nisi, V. (2013). Towards understanding social media: Two studies exploring the uses and gratifications of Facebook. *Proceedings of HCI Korea, 2013 Gangwon, South Korea.*
- Srivastava, A. (2015). The effect of Facebook use on life satisfaction and subjective happiness of college student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Indian Psychology*, 2(4), pp.204-216
- Statista. (2020). Digital & Trends: Most popular social networks worldwide.
- Steers, M., Wickham, R. & Acitelli, L. (2014). Seeing everyone else's highlight reels: How Facebook usage is linked to depressive symptom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33(8), pp.701-731
- Steinfeld, C., Ellison, N. & Lampe, C. (2008). Social capital, self-esteem, and use of online social network sites: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9(6), pp.434-445
- Stetina, U., Kothgassner, D., Lehenbauer, M. & Kryspin-Exner, I. (2011). Beyond the fascination of online-games: Probing addictive behavior and depression in the world of online-gaming.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7(1), pp.473-479
- Stewart, F. (2016). *Technology and underdevelopment*. Springer.
- Tamir, I. & Mitchell, P. (2012). Disclosing information about the self is intrinsically rewarding.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9(21), pp.8038-8043
- TechCrunch, (2018). Tech giants offer empty apologies because users can't quit. <https://techcrunch.com/2018/11/25/nowhere-to-go/>
- Tong, S., Heide, B., Langwell, L. and Walther, J. (2008). Too much of a good thing? The relationship between number of friends and interpersonal impressions on Facebook.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3, pp.531-549
- Triandis, C. (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3), pp.506-520
- Utz, S. & Beukeboom, C.J. (2011). The role of social network sites in romantic relationships: Effects on jealousy and relationship happiness.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6(4), pp.511-527
- Utz, S. & Maa, C. (2018).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Facebook use and adaption to financial hardship: Evidence from a longitudinal panel study. *Computers in Human Behavior*, 89, pp.221-229
- Valkenburg, M., Peter, J. & Schouten, P. (2006). Friend networking sites and their relationship to adolescents'

- well-being and social self-esteem. *Cyber Psychology & Behavior*, 9(5), pp.584-590
- Valkenburg, M. & Peter, J. (2009). Social consequences of the internet for adolescents a decade of research.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8(1), pp.1-5
- Valenzuela, S., Park, N. & Kee, F. (2009). Is there social capital in a social network site?: Facebook use and college students' life satisfaction, trust, and participation.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4(4), pp.875-901
- Verduyn, P., Lee, D. S., Park, J., Shablack, H., Orvell, A., Bayer, J., &Kross, E. (2015). Passive Facebook usage undermines affectivewell-being: Experimental and longitudinal evidence. *Journal of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44(2), pp.480-488
- Verduyn, P., Ybarra, O., Résibois, M., Jonides, J., & Kross, E.(2017). Do social network sites enhance or underminesubjective well-being? A critical review. *Social Issues andPolicy Review*, 11(1), pp.274-302.
- Vasalou, A., Joinson, A. & Courvoisier, D. (2010). Cultural differences, experience with social networks and the nature of "true commitment" in Facebook.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Computer Studies*, 68(10), pp.719-728
- Veenhoven, R. (1984). *Conditions of happiness*.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 Vogel, E. A., Rose, J. P., Roberts, L. R., & Eckles, K. (2014). Social comparison, social media, and self-esteem. *Psychology of Popular Media Culture*, 3(4), pp.206-222.
- Vogel, E. A., Rose, J. P., Okdie, B. M., Eckles, K., & Franz, B. (2015). Who compares and despairs? The effect of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on social media use and its outcom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86, pp.249-256
- Wang, S. (2013). "I share, therefore I am": Personality traits, life satisfaction, and Facebook check-ins.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6(12), pp.870-877
- Wise, K., Alhabash, S. & Park, H. (2010). Emotional responses during social information seeking on Facebook.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3(5), pp.555-562
- Wheeler, L. & Reis, H. (1991). Self-recording of everyday life events: Origins, types, and uses. *Journal of Personality*, 59, pp.339-354
- Zhan, L., Sun, Y., Wang, N. & Zhang, X. (2016). Understanding the influence of social media on people's life satisfaction through two competing explanatory mechanisms. *Aslib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68(3), pp.347-361

논문투고일 : 2021년 06월 19일
심사개시일 : 2021년 07월 14일
1차 수정일 : 2021년 08월 08일
2차 수정일 : 2021년 08월 18일
게재확정일 : 2021년 08월 20일

<要旨>

유럽과 아시아대학생의 페이스북 이용행동과 삶의 만족에 관한 비교 연구

- 독립적 개인주의문화와 상호의존적 집단문화 관점에서 -

박현지

본 연구는 유럽과 아시아대학생들의 페이스북 이용행동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차이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독립적 개인주의문화와 상호의존적 집단주의 관점에서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영국의 L도시에 위치한 A, B, C, D, E대학교에 유학중인 유럽 5개국(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과 아시아 3개국(한국, 중국, 일본) 대학생을 대상으로 2020년 8월 3일부터 2020년 8월 9일까지 7일 동안 일기연구(diary method)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 회귀모형을 사용하였으며, 결과는 첫째, 포스팅과 채팅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럽과 아시아대학생들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댓글의 경우 유럽대학생들은 가설이 기각되었지만, 아시아대학생들에게는 가설이 채택되었다. 셋째, '좋아요'도 유럽 및 아시아대 학생 모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아 가설을 기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수동적 팔로잉은 시간적 소요가 많이 되는 활동이기에 모두에게서 가설은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피드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유럽대학생에 대한 가설은 기각되었으나, 아시아대학생들의 가설은 채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일기연구를 이용하여 자료의 회상편중 현상을 줄이고자 하였으며, 기존 연구보다 세분화된 페이스북 이용행동 요인을 통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독립적 개인주의문화와 상호의존적 집단주의 성향에 따른 비교연구를 하여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유럽과 아시아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들의 일상화된 '페이스 북'현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A Comparative Study on Facebook Use Behaviour and Life Satisfaction of European and Asian University Students

- From the Perspectives of Independent Individualistic Culture and Interdependent Group Culture -

Park, Hyun-Jee

This study examines the differences in Facebook usage behaviors according to cultural differences among college students, and comparatively analyzes the effects of these differences on life satisfaction. For this purpose, students from 5 European countries (UK, Germany, France, Italy, Spain) and 3 Asian countries (Korea, China, Japan) who are studying at universities A, B, C, D, and E located in city L in the UK were targeted. A diary method survey was conducted for 7 days from August 3, 2020 to August 9, 2020. A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model was used to test the hypothesis presented in this stud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effects of posting and chatting on life satisfaction were common to both European and Asian university students. Second, in the case of comments, the hypothesis was rejected by European university students, but the hypothesis was adopted by Asian university students. Third, it can be seen that 'Like' does not affect the life satisfaction of both European and Asian university students, thus rejecting the hypothesis. Fourth, since passive following is a time-consuming activity, the hypothesis was adopted by everyone. Finall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ffect of positive feedback on life satisfaction, the hypothesis for European university students was rejected, but the hypothesis for Asian university students was accepted. The result of this study was to reduce the phenomenon of recall bias in data using diary study. We differentiated from previous studies by conducting a comparative study according to cultural differences on the effect of Facebook usage behavior factors on life satisfaction more subdivided than existing studies. Also, through this study, we were able to better understand the phenomenon of 'Facebook', which is used the most by university students globally and their daily life.